

축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전기협회 회장 다다 고우키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님, 이원걸 회장님, 회원 여러분,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오늘 제42회 전기의날 기념 전기산업진흥축진대회에 초청을 받아
일본전기협회의 대표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것을 무한
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2회를 맞이하는 뜻 깊은 대회가 이렇게 성대하게 거행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오늘날까지 대한전기협회가 일본전기협회에 보여주신 각별하고 따뜻한 우정과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국의 전기사업에 있어서 발전부문 분할에 이어, 작년부터는 배전부문에서도 독립사업부
제를 시행하는 등 경쟁원리의 도입에 의해 보다 효율적인 전력공급체제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에 의해 국제규격 부합을 도모하면서 국제화에 대한 대응도 착실하게 추진
하는 등 다양한 과제에 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산업계의 핵심인 대한전기협회의 역할과 임무는 매우 크며, 앞으로 귀 협회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전력자유화가 착실히 추진되고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하여 금년에는 새로이 자유화 제도를 재검토하게 되어 그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에너지 대책으로서 작년 5월에 신 국가에너지전략이 수립되어 그 핵심으로서 원자력입국 계획이 확정되었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핵연료 사이클의 착실한 추진 등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공통과제에 대응하는 한일 양국의 전기협회는 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연대의 고리가 더욱 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6월 한일 전기기술교류회의에 관한 합의에 기초하여 작년 10월 도쿄에서 제1회 한일 전기기술교류회의가 대한전기협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번 주 13일에 한국의 강원도 평창에서 제2회가 개최됩니다. 제1회 때와 마찬가지로 한일 전기관계자로서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대회가 한국 전기관계 사업의 새로운 발전으로 이어져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일본전기협회의 변함없는 우정을 전하며 제 인사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10일
사단법인 일본전기협회
회장 다다 고우키